

광주FC 이번엔 꼭...포항전 첫승 해낸다

통산 6무 14패로 K리그 팀 유일 무승...3일 레트로 유니폼 입고 홈경기 엄원상·엄지성·허을 등 '광탄소년단' 출격 ...전남 2일 안양전 4위 굳히기

광주FC가 역사적인 첫 승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까?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K리그1 2021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앞선 라운드에서 울산 원정을 다녀왔던 광주는 3연패를 안고 돌아왔다.
광주는 탄탄한 수비와 윤평국의 페널티킥 선방으로 전반전을 잘 풀어갔지만 후반 4분 이동준의 헤더에 0-1패를 기록했다.
21일 전북전에서 1-2로 진 광주는 18일 치른 제주전이 억울한 몰수패로 정정되면서 줄지에 3연패에 빠졌다.

9위에서 11위로 내려선 광주는 강등권에서 험악한 싸움을 펼쳐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난적 중의 난적'을 만나게 됐다.
포항은 광주가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다. 20번 만나 6무 14패만 기록했다.
광주는 홈팬들의 응원을 안고 초심으로 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레트로 유니폼을 입고 뛰는 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포항전을 '레트로 데이'로 삼고 창단 유니폼을 재해석해 마련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오른다.
아쉬운 3연패에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9월 3골을 몰아친 김주공을 비롯해 엄원상-엄지성-허을 등 '광탄소년단'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문장 윤평국은 지난 울산 원정에서 전복전 실수를 만회하는 선방쇼를 펼치면서 수비의 중심을 잡았다. 두현석도 부상에서 복귀해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선수 구성 옵션이 넓어졌다.
포항도 최근 3연패 중이다. 주전 골키퍼 강현무의 부상 여파로 골문 앞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광주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레트로 데이'를 여는 광주는 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2번 게이트 입구(E석 매표소)에 역대 유니폼을 전시하고, 창단 11주년을 기념해 선착순 111명(성인 66명, 청소년 50명)에게 역대 유니폼을 랜덤으로 선물할 예정이다.

또 풋볼링 장외행사를 통해 2021 사인볼과 옥스퍼드 블록 등도 증정한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안양으로 가 4강 굳히기에 나선다.
전남은 2일 오후 6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과 K리그2 3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준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4위에 위치한 전남은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앞선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로 3연패는 면했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다.
5위 부산아이파크가 7점 차 밖에 있지만 아직 4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양도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천상무와 '우승 싸움'을 하는 안양은 앞선 31라운드 안산전에서 0-1패를 기록하면서 '비상' 상황이다.
준플레이오프와 우승을 놓고 경쟁 중인 두 팀의 흥미로운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레트로 유니폼을 입은 엄원상.



내가 호날두다!

3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비아레알과 2021-2022 UCL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후반 추가시간에 역전 극장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살린 호날두 극장골 챔스리그 178경기 최다 출전 신기록

2-1 역전승 이끌며 팀 첫승 견인 바르샤는 벤피카에 0-3 완패

'기록의 신(神)'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최다 출전(178경기)을 자축하는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에 첫 승리를 선물했다.
맨유는 3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비아레알과 2021-2022 UCL 조별리그 F조 2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시간 막판 호날두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5일 영보이스(스위스)와 1차전에서 1-2로 역전패했던 맨유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승리를 따냈다.
1승 1패(승점 3)로 영보이스와 동률을 이룬 맨

유는 상대 전적에서 밀려 3위에 랭크됐고, 비아레알(1무 1패·승점 1)은 최하위에 처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맨유는 후반 8분 비아레알의 파코 알카세르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곧바로 반격에 나선 맨유는 후반 15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투입한 프리킥을 알렉스 테레스가 페널티지역 왼쪽 앞에서 강력한 왼발 발리슛으로 '원더골'을 꽂으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며 후반전 45분이 흐르고 추가시간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맨유의 역전골이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호날두였다.
호날두는 후반 추가시간 종료 45초 정도를 남기고 문전혼전 상황을 맞아 제시 링가드가 살짝 내준 볼을 골 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오른발 슛을 시도했고, 슛은 골키퍼의 왼손에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호날두는 이날 출전으로 UCL 개인 통산 178경기를 기록하며 이카르 카시야스(현역 은퇴·177경기)를 제치고 UCL 역대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올렸다.
호날두는 UCL에서 개인 통산 136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121골)를 15골 차로 앞서며 UCL 역대 최다 득점 1위 자리를 이어갔다.
더불어 호날두는 UCL 무대에서 추가시간에 개인 통산 3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후반 추가시간 득점' 부문에서도 세르히오 아귀로(바르셀로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반면, E조에서는 메시가 떠난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1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다른 뉴네스의 멀티골(2골)이 터진 벤피카(포르투갈)에 0-3 완패를 당하면서 2연패에 빠지고 말았다.
H조의 유벤투스(이탈리아)는 첼시와 2차전 홈 경기에서 1-0 승리를 따내고 2연승으로 조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신안 비금초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버스에 마련된 '움직이는 체육관'에서 팬션을 체험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비금초서 '스포츠버스 사업'

작은 운동회 열고 스포츠 체험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1 스포츠버스(학교 방문) 사업'을 시작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30일 신안군 비금도에 있는 비금초등학교에서 스포츠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72명인 미니학교다.
비금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스포츠버스 내·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체육관'과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작은 운동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스포츠버스 내부의 VR 체험존, Wii Play존, 건

강 측정존 체험이 진행됐고, '작은 운동회'에서는 슈퍼볼 릴레이, 버블 슈트 서바이벌, 계주 릴레이 달리기 등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렸다.
비금초 류율석 교장은 "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농어촌 학교에 스포츠버스 행사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스포츠버스 행사를 통해 꿈을 안고 달리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뿌듯하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체육회와 전남체육회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황부영(비금초 3년)군도 "TV에서나 보던 올림픽 선수들 장비도 입어보고, 처음보는 기구를 가지고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중일 바둑 삼국지' 농심배 11일 개막

'한중일 바둑 삼국지' 농심배가 다음 달 11일 본선에 돌입한다.
3국의 바둑 단체 대항전인 제23회 농심배라면 배 세계바둑최강전 본선 1라운드 1~4국은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중국·일본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열린다.
11월 26일부터는 본선 2라운드 5~9국, 내년 2월 21일부터는 최종 우승국을 정하는 본선 3라운드 10국이 열린다. 모든 대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2월 막을 내린 제22회 대회에서는 한국이

신진서(21) 9단의 5연승 활약으로 2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13회 우승했고, 중국은 8회, 일본은 1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한국랭킹 1위로 시드를 받은 신진서, 국내 선발전 통과한 박정환(28) 9단, 변상일(24) 9단, 신민준(22) 9단,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한 원성진(36) 9단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농심이 후원하는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2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3관	기적
4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5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보이스 극장판 포켓몬스터: 영글의 아이, 코코
6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9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보이스
7관 씨네키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모가디슈 국영민 풍류는 꽃일까? 격렬!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후원
8관 씨네키움	용과 주권께 공주, 수색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8237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10. 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